

# 현대기아차 해외판매 5000만대 돌파 눈앞

### 작년말 4830만대...월 평균 50만~60만대 팔려 2000년대 들어 전체 7%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

현대·기아자동차의 해외 누적 판매 대수가 이르면 올 3월 5000만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2000년대부터 수출이 크게 늘어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한몫을 했다.

달해 올 3월까지 해외 누적 판매 5000만대 달성이 예상된다. 지난해 1976년 현대차가 한국 자동차 첫 고유모델인 '포니' 6대를 에콰도르에 처녀 수출하고, 기아차가 1975년 '브리스 피업' 10대를 카타르행 운반선에 선적한 이후 40년이 채 안돼 이룩한 결실이다. 5000만대는 글로벌 시장에서 830만대 이상 판매된 현대차

의 베스트셀링 모델 아반떼를 한 줄 (전장 기준)로 세우면 지구를 5.7바퀴 돌 수 있는 길이다.

현대·기아차는 첫 해외 수출 이후 27년만인 지난 2001년 해외 누적 판매 1000만대를 돌파했으나, 2000년대까지는 1000만대 돌파 이후 5년만인 2006년에 달성했다. 이후 해외 판매 대수는 가속도를 내며 2009년 3000만대, 2011년 4000만대를 연이어 경신했고, 5000만대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해외 판매 기록 경신에는 수출이 결정적 기여를 했다. 지난해 말까지 현대·기아차 누적 수

출은 3147만대에 달했다. 현대차가 1942만대, 기아차가 1205만대를 각각 수출했다. 이는 지난해 말 현재 현대·기아차의 전체 해외 누적 판매 4833만대의 3분의 2에 달한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경우 1990년대까지 다품종 소량체제 생산방식에 따라 트럭과 버스를 주로 생산했지만 2000년대 들어 본격적인 수출항로를 열었다. 2002년 라인 합류와 사업으로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로 바뀐 기아차 광주공장은 2004년 스포티지를 출시하면서 북미 수출을 시작했고, 2005년에는 수출이 내수를 앞질렀다. 2000~2012년까지 수출대수는 240

만대, 현대·기아차가 해외 누적 판매 1000만대를 돌파한 시점부터 수출물량의 7% 가량을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만든 셈이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쏘울과 스포티지R 등 주력 차종이 전 세계에 수출되면서 생산 물량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지난해 기준 수출 비중은 7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출 증대에 따라 현대·기아차 1차 협력업체가 지난해 한 해 동안 창출한 신규 일자리도 1만5000개에 달한다.

/임동훈기자 exian@kwangju.co.kr

# 불황에도 창업 열기 신설법인 역대 최고

### 지난해 7만4162곳

경기 침체에도 창업 열기는 식을 줄 모른다. 작년에 전국에 신설된 법인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에 신설된 법인수는 7만4162개다. 연간 신설 법인수가 7만개를 넘는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2011년 신설법인수는 전국에서 6만5110개다.

1154개 법인이 더 생겼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등 8대 도시 지역이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1월은 55%(3787개)가 8대 도시에 몰려 있었고, 작년에도 8대 도시 신설법인수가 전체의 55%(4만 1036개)에 달했다.

신설법인수가 매년 증가 추세인 것과 달리 부도법인수는 금융위기를 격랑을 헤쳐나오면서 꾸준히 감소했다.



이렇게 입으면 '센스쟁이' 20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여성복 매장에서 직원들이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패션을 제안하고 있다. 백화점 관계자는 "단정하면서도 신뢰감을 주는 베이지나 네이비 컬러를 활용한 연출하고 이너웨어로 포인트를 주면 신선한 이미지를 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전남도 수출상 대상 완도전복(주)

전남도는 20일 도청 왕인실에서 제 9회 수출상 시상 및 2013년도 통상정책 설명회를 갖고 완도전복(주) 황영우 대표(사진) 등 수출유공자 및 기관에 수출상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남 수출증진에 견인차 역할을 한 우수기업 7개사와 유공자 9명에게 수출상을 수여했다.

대상을 받은 완도전복(주)은 생산자들이 참여해 전복의 해외 수출 길

을 열었고, 지난해 1244만달러(전년 대비 45% 성장)의 수출성과를 올렸다.

우수상은 장성(주)한백전자와 나주 완도물산, 장려상은 장성 디와이엘엔제이(주)와 영암 한국알루미늄(주), 순천 매일식품(주), 여수(주)보양이 각각 수상했다.

/오광욱기자 kroh@kwangju.co.kr

## “전남産 파프리카·전복 수출 확대”

### 김재수 aT 사장 광주 방문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은 20일 “전남의 주요 농산물인 파프리카, 유자차, 전복, 김 등 수출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사장은 광주전남지사 2013년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사장은 “최근 해외에서 우리나라 농수산물품을 적극 구매하고 있다”며 “일본, 중국 등 39개 해외 대형유통업체와 공동업무협약을

체결 우리 농산물을 많이 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장은 “산·학·연과 함께 광주·전남지역의 스타산품을 만들어야 한다”며 “전남이 생산 1위인 전복과 김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공급 시스템 구축과 함께 수출선을 다변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또 “농수산물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저리의 운영자금 300여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남도에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의 직거래 확대, 농산물 수입단정을

위한 배추, 무, 마늘, 양파에 대한 수매사업 등 농가소득증진을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기자간담회 후 별교농협에서 전남 참다래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FTA시대와 한국농업의 미래전망’을 주제로 특강을 한 후 강진 파프리카 전문생산단지 농업회사법인 탐진들(주)를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이통사 영업정지 하나하나

### 과잉 보조금 여전

지난달 7일 시작된 이통통신 3사의 순차 영업정지가 후반부로 접어들었지만 가입자 확보를 위한 보조금 경쟁은 오히려 과열되는 양상이다. 이통사들은 예전보다 많은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경쟁사의 가입자를 빼앗는데 혈안이 됐다.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인 27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각각 24일, 22일, 20일의 영업정지 제재를 받고 순차적으로

로 이를 시행하고 있다.

◇번호이동 건수는 영업정지 전과 비슷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이통사 번호이동 건수는 모두 116만3720건으로 작년 12월 116만8537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난달 7~30일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를 당했고 지난달 31일 SK텔레콤이 영업정지에 들어갔던 점을 감안하면 과열 상태가 전보다 심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KTOA는 이후 집계 상황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지만 시장 과열은 2월 들어서도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먼저 산 사람만 손해?~ 보조금 과열 계속될 듯 = 방통위가 보조금을 규제하는 명목은 ‘이통사의 가입자 차별 행위를 막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영업정지 제재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출혈 경쟁이 더 심해지면서 휴대전화의 실제 구입 가격이 단기간에 큰 등락을 거듭해 난감 31일 SK텔레콤이 영업정지에 들어갔던 점을 감안하면 과열 상태가 전보다 심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방통위는 영업정지 기간에도 수차례에 걸쳐 이통사 임원들을 불러 구두 경고를 했지만 출혈 경쟁은 오히려 과열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 은행권, 근저당 설정비 반환소송 패소

대출 계약서에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에 관한 고객의 의사 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 은행이 설정비를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20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단독 엄상문 판사는 장모씨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비 75만1750원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서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엄 판사는 대출거래약정서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부담 주체란에 수기 표시가 없는 점을 이 같은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그는 “해당 대출상품설명서의 내용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실질적 개별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약관이 무효이거나

관련 약정 자체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담보권자가 원칙적으로 설정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 법령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용은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승소했던 소송과 같은 사안인데 이번 판결만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며 “즉각 항소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종진 | 채널A 보도본부 경제부장 기자

채널A 제작담당상무 프듀서 | 이영돈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스카이라이프 13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해남 영암 진도 장흥 16	IPTV 18

CHANNEL A www.ichannelA.com

채널A